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62호 【루계 제26036호】 주체107(2018)년 6월 11일 (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미합중국 대통령과의 역사적인 첫 상봉과 회담을 위하여 평양을 출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원회의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이 개최되는 싱가포르공화국을 방문하시기 위하여 10일 오전 중국전용기로 평양을 출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와 도널드 제이.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사이의 역사적인 첫 상봉과 회담이 6월 12일 오전

싱가포르공화국에서 진행되는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은 당 및 정부지도간부들과 인사를 나누시고 중국전용기에 오르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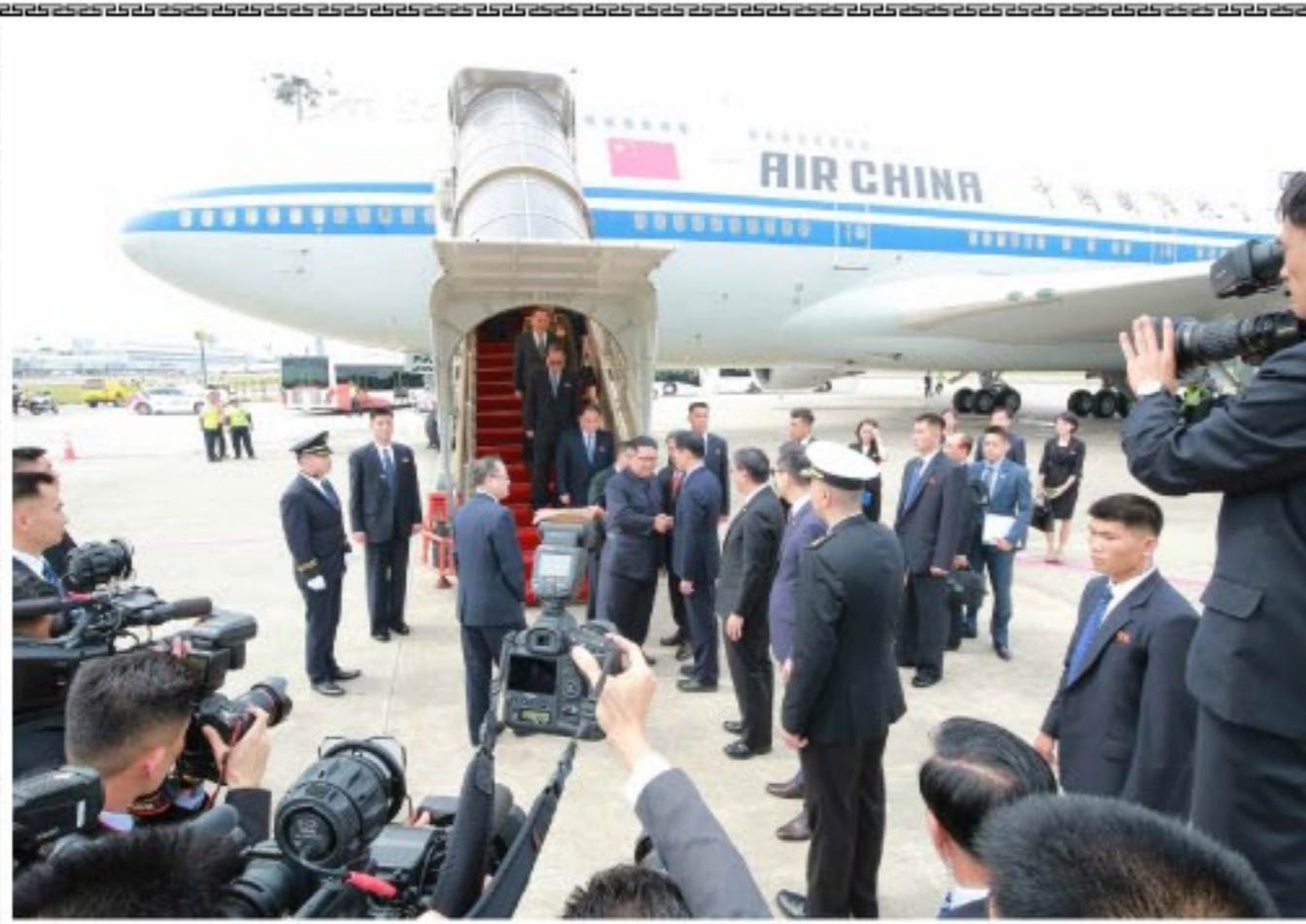
당 및 정부지도간부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조미 두 나라 사이의 첫 수뇌상봉과 회담에서 성과를 거두시고 부디 돌아오시기를 충심으로 축원

박광호동지, 김병해동지, 안정수동지, 박태성동지, 최부일동지, 로두철동지, 최휘동지, 박태덕동지들이 환송하였다.

전세계의 비상한 관심과 기대 속에 역사상 처음으로 진행되는 조미수뇌회담에서는 달라진 시대적 요구에 맞게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문제, 조선반도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문제들을 비롯하여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폭넓고 심도있는 의견이 교환될것이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싱가포르공화국에 도착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6월 10일 오후 싱가포르공화국에 도착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영접하기 위하여 싱가포르공화국 외무상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교육상 용 이 캉, 외무성 상임비서 처 위 경, 외무성 동북아시아총국장 에리크

베오가 비행장에 나와있었다. 현지시간으로 오후 3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타신 중국전용기가 싱가포르 창이국제비행장에 착륙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전용기에서 내리시여 영접나온 싱가포르정부 간부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시고 숙소인 세인트 레지스호텔로 향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싱가포르공화국 수상을 접견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6월 10일 싱가포르공화국을 방문하시고 대통령궁전에서 시엔 통수상을 접견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인 김영철동지, 리수용동지, 인민무력상 노광철동지가 함께 참가하였다.

상대측에서는 싱가포르공화국 외무상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교육상 용 이 캉, 외무 및 국방담당 고위 국무상 말리키 빈 오스만, 문화, 공동체, 청년 및 무역공업담당 고위 국무상 썸 엔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싱가포르공화국 수상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시고 방명록에 친필수표를 하신 다음 친선적인 담화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훌륭하고 아름다운 싱가포르공화국을 방문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정부와 조선인민을 대표하여 싱가포르정부와 인민들에게 진심으로 되는 인사와 훌륭한 축원을 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을 위하여 모든 조건과 온갖 편의를 제공하여준 싱가포르정부의 성의있는 협조에 깊은 시의를 표시하시였다.

싱가포르수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국을 조미수뇌회담장소로 선정해준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한다 하였습니다 력사적인 이번 조미수뇌회담이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될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석상에서는 두 나라사이의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친교를 깊이하면서 폭넓은 교류와 협조를 활성화하여 쌍무관계를 다방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제들이 언급되였다.

담화는 화기에 넘치는 우호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본사정치보도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연에너지기를 적극 리용하자

수차식물 뽑프를 널리 받아 들여

자강도의 일군들이 농촌경리의 수리회를 더욱 높은 수준에서 원형화해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전기를 쓰지 않고 물을 펴서 농업부문에 리용하기 위한 작전과 지회를 지밀하게 짜고들어 성과를 거두고 있다.

물이 흐르는 곳마다에 수차식물 뽑프를 설치하고 비탈밭들과 남새밭들에 물을 대고 있는 사실이 그 실례이다. 구조가 간단하고 이동하기가 편리한 이 뽑프는 전기나 연료가 없어도 비탈밭들에 물을 댈 수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일군들은 창조적이며 진취적인 사업가들과 일본새를 가지고 일해나가야 합니다.》

자강도는 농경지의 대부분이 비탈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그런 것으로 하여 도에서는 가을이 지을 때 농작물이 피러들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많은 물을 들이곤 하였다.

이 문제를 놓고 고심하던 도당위원회 일군들은 국가과학원 자연에너지연구소에서 제작한 수차식물 뽑프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이 뽑프를 리용하면 전기를 쓰지 않으면서 비탈밭들에 짜지 물을 펴줄 수 있다는 사실이 생겼다.

이렇게 되어 수차식물 뽑프를 제작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도출되었다. 작은 로력과 자재를 붙이면서도 최대의 실리를 얻을 수 있게 제작하기 위한 조직사업이 진행되었다.

도의 책임일군들은 국가과학원 자연에너지연구소에 해당 부문 일군들을 보내어 필요한 기술을 배워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기술자, 기능공들이 강계시 온정협동농장에 나가 수차식물 뽑프를 제작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치고 조직보장을 앞세웠다.

일군들은 수차식물 뽑프 제작을 위해 낮과 밤이 따로 없이 긴장한 전열을 펼치는 기술자, 기능공들과 함께 새날을 맞이 하려고 하였고 뽑프가 제작되었을 때에는 그들과 함께 풍작 상태를 보면서 부족점들을 되짚어 보았다. 그 과정에 이들은 여러 가지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풀어 수차식물 뽑프를 제작하는데 성공하였다.

도의 책임일군들은 시, 군당 위원장들과 농업부서 일군들을 위한 보며주기를 진행하는데 이 작업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었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강계시인의 협동농장

많은 수차식물 뽑프들이 제작되어 로력과 전력을 절약하면서 농경생산을 늘일 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수차식물 뽑프들은 협동농장은 물론 도안의 양묘장들에서도 운용되고 있다.

한길은 자강도의 일군들처럼 당정책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실천해나갈 때 성과가 이룩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파기자 김 승 훈



자체로 생산한 전기로 경영활동을 짜고들고 있다. -강원도세진원리미국에서- 특파기자 심철일 찍음

형성 자동화 기구 공장 에서

정성자동화기구공장이 작아도 큰일을 하는 단위로 소문을 내고 있다. 품역발전기들을 생산하여 전기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바지하기 때문이다.

올해에도 공장에서는 농업연구원 과수학연구소와 평성시안의 여러 단위들에게 수십대의 품역발전기들을 생산보장하여 사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품역과 조수력, 생물력과 태양에너지기에 의한 전력생산을 높이며 자연에너지기의 리용범위를 계속 확대하여야 합니다.》

자연에너지기를 적극 리용함에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평안남도당위원회와 평성시당 위원회에서는 공장에서 품역발전기 생산을 높이기 하는 것과 함께 용량이 보다 큰 품역발전기들을 만들도록 당적으로 힘있게 떠밀어 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신년사를 받아안은 공장일군

들은 용량이 작은 품역발전기 생산에만 머물러 있던 자신들을 뛰어넘어 용량이 보다 큰 품역발전기들을 제작할 목표를 세웠다.

용정서지비인을 비롯한 일군들은 대중을 이끌어 나가는 기관차적 역할을 하면서 기술적으로 품역발전기들을 생산하는데 큰 힘을 넣었다.

애로와 난관이 적지 않았지만, 그럼수록 일군들은 기술자, 노동자들에게 들어가 과학기술에 기초한 지역시장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도록 이끌었다.

법일법일장과 류영선, 박승혁 등들을 비롯한 기술자들은 서로 창조적 지혜와 힘을 합쳐가며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갔다.

장조의 낮과 밤이 이어지는 속에 형제가 만들어지고 날개가 가벼우면서도 견고하여 셀바람에도 끄떡없게 설계제작되었다.

기술집단은 이에 기초하여 과학기술 성과를 받아들이고 창조적 지혜를 합쳐 품역발전기의 부품을 줄이면서도 속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회전체 차단에 쓸을 합리적으로 설치하여 전력손실을 최대한 줄였다.

대중의 창조적 힘은 종합조종장치 제작에서 높이 발휘

황해북도 체신관리국에서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지열을 리용하여 평방과 난방을 보장하면 많은 전기를 절약할 수 있고 여러모로 좋습니다.》

자연에너지기를 적극 리용함에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황해북도 체신관리국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지열에 의한 평방난방체계를 훌륭히 완성하여 그 덕을 보고 있다.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새롭게 일떠선 전사의 의뢰도 피력하지 않나 내부는 지열에 의한 평방난방체계가 도입되어 찾아오는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고 있다.

그렇단도 하다.

체신관리국청사에 도입된 지열에 의한 평방난방체계가 많은 우점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사무실들에 전기나 석탄 보일러를 리용하는 가열설비들이 필요없어 더욱 좋다. 특히 지열과 생물질비료를 결합한 것으로 하여 추운 겨울에도 사무실 온도를 정상유지할 수 있다.

결과 많은 전기와 열량이 절약된다.

사실 햇빛을 판리국청사를 세로 일떠세울 때에는 난방보장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다. 난방을 종전대로 석탄을 리용하여 보양하였는가 아니면 지열에 의한 방식으로 하였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논의가 계속되었다.

일부 사람들은 지열을 리용하는 난방보장체계를 세웠다가 실제하면 어떻게 하는가고 하였다.

이러한 때 국장 평일동무가 자기의 결정을 내놓았다.

《물론 지열에 의한 평방난방체계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열을 비롯한 자연에너지기를 적극 리용함에 대한 당정책을 적극 받아들이는 관철적 자세로 되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높지 않아도 참가자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그러하여 판리국청사 건물에 지열에 의한 평방난방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게 되었다.

국장은 평방난방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기술연구조를 꾸리고 설계에 달려보도록 조직사업을 진흥시켜 하였다. 기술연구진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수력을 위주로 하면서 화력에 의한 전력생산을 합리적으로 배양하고 전차력발전의 비전을 높이며 다양한 자연에너지기원천을 적극 리용하여 국가적인 에너지 수요를 자체로 충족시켜야 합니다.》

단원비섯공장에 가면 하나의 이색로운 풍경을 볼 수 있다.

호숫만 비섯공장과 함께 즐비하게 늘어선 배수설계의 태양발전지관들과 크고작은 품역발전기들이 기온차에 돌아가는 모습이다.

자연에너지기를 적극 리용함에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여러 가지 이색로운 풍경을 볼 수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지금 있는 발전소들에서 전력생산을 최대한으로 늘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과 함께 긴장한 전력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 위한 방편책을 마련해 주어야 하고 실력을 위한 투쟁에 힘을 넣으며 수력자원을 위주로 하면서 풍력, 지열, 태양열을 비롯한 자연에너지기를 리용하여 전력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발전부 자연에너지기로 전기를 생산하여 그 덕을 단단히 보고 있었다.

지난 시기 단원시에서는 자연에너지기를 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여 비섯공장에 태양발전지관과 품역발전기들을 설치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적극 리용하여 지열을 리용하는 방법을 고안하고 고압전력케이블을 비롯한 설비들을 가동시키는데 리용하고 있는 한편 그것을 자기

발전지관과 품역발전기를 결합한 발전체계를 확립하였다.

시의 일군들은 자연에너지기를 리용하여 비섯공장을 정상화할 것을 결심하였다.

그들은 비섯공장에 필요한 전력을 자체적으로 생산하여 태양발전지관들과 품역발전기들을

고장의 특성에 맞게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도 착실히 해나갔다.

일군들의 열정은 헌신과 대중의 일당원 불로 지저작특성과 자체의 실정에 맞는 태양발전지관과 품역발전기들을 결합한 발전체계를 완성할 수 있었다.

비섯공장에 설치된 태양발전지관들과 품역발전기들에서 생산된 전기는 처음에 조명을 리용되었고 점차 비섯기질보체기와 고압전력케이블을 비롯한 설비들을 가동시키는데 리용되고 있다.

태양발전지관들과 품역발전기들의 능력은 모두 용량이 수십kW 정도이며 이것이면 비섯공장의 조명보장은 물론 설비들을 충분히 돌릴 수 있다고 한다.

자체로 태양발전지관과 품역발전기들을 설치해놓고 전기덕을 보고있으니 얼마나 좋겠다.

이곳 공장에서 지열에 의한 평방난방체계를 리용하여 지열에 대한 당정책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끈기있게 밀고나간다는 그 어느 단위에서나 더욱 볼 수 있다.

특파기자 김 경 현

랭간방모장을 지열로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지열을 리용하여 평방과 난방을 보장하면 많은 전기를 절약할 수 있고 여러모로 좋습니다.》

자연에너지기를 적극 리용함에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랭간방모장을 지열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수력을 위주로 하면서 화력에 의한 전력생산을 합리적으로 배양하고 전차력발전의 비전을 높이며 다양한 자연에너지기원천을 적극 리용하여 국가적인 에너지 수요를 자체로 충족시켜야 합니다.》

단원비섯공장에 가면 하나의 이색로운 풍경을 볼 수 있다.

호숫만 비섯공장과 함께 즐비하게 늘어선 배수설계의 태양발전지관들과 크고작은 품역발전기들이 기온차에 돌아가는 모습이다.

자연에너지기를 적극 리용함에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여러 가지 이색로운 풍경을 볼 수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지금 있는 발전소들에서 전력생산을 최대한으로 늘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과 함께 긴장한 전력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 위한 방편책을 마련해 주어야 하고 실력을 위한 투쟁에 힘을 넣으며 수력자원을 위주로 하면서 풍력, 지열, 태양열을 비롯한 자연에너지기를 리용하여 전력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게

단원비섯공장에서

발전지관과 품역발전기를 결합한 발전체계를 확립하였다.

시의 일군들은 자연에너지기를 리용하여 비섯공장을 정상화할 것을 결심하였다.

그들은 비섯공장에 필요한 전력을 자체적으로 생산하여 태양발전지관들과 품역발전기들을

고장의 특성에 맞게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도 착실히 해나갔다.

일군들의 열정은 헌신과 대중의 일당원 불로 지저작특성과 자체의 실정에 맞는 태양발전지관과 품역발전기들을 결합한 발전체계를 완성할 수 있었다.

비섯공장에 설치된 태양발전지관들과 품역발전기들에서 생산된 전기는 처음에 조명을 리용되었고 점차 비섯기질보체기와 고압전력케이블을 비롯한 설비들을 가동시키는데 리용되고 있다.

태양발전지관들과 품역발전기들의 능력은 모두 용량이 수십kW 정도이며 이것이면 비섯공장의 조명보장은 물론 설비들을 충분히 돌릴 수 있다고 한다.

자체로 태양발전지관과 품역발전기들을 설치해놓고 전기덕을 보고있으니 얼마나 좋겠다.

이곳 공장에서 지열에 의한 평방난방체계를 리용하여 지열에 대한 당정책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끈기있게 밀고나간다는 그 어느 단위에서나 더욱 볼 수 있다.

특파기자 김 경 현

태양빛에너지기의 덕을 보는 고장

삼수군 신회협동농장에서

학교에서는 태양빛에너지기를 리용하여 다기능교실들을 운영하고 있었다.

자연에너지기를 적극 리용함에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농장의 일군들은 공공건물들과 살림집들에 태양발전지관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내밀었다.

우선 일군들이 주민들속에 들어가 태양발전지관을 리용하면

필요하다면 지면이 수원이 되어 서라도 거기에 해결할 각오를 안고 불타는 마음으로 헌신적으로 노력으로 공사장에는 세멘트를 비롯한 자재들이 제때에 보충되었다.

군책일일군들은 공사에 필요한 기계구비물들을 보장하기 위해 누구보다 애썼다. 결과 유망실적들을 비롯한 기계화수단들이 공사장에 전제되어 시급부대 실적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

군책일일군들의 실천적 모범은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자력갱생이 제일이라는 신념을 더욱 굳혀주고 승리의 신념들을 이뤘고 또 두께 해운의 믿음으로 되었다.

자기 힘을 믿으면 강자가 된다. 대중의 정신력은 총폭발이었다. 공사가 시작되자 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모두 열쳐나왔다. 특히 읍지구의 가두너머 명원들은 말처럼 작업과제수행에서 두각을 나타내었다.

드높은 애국열의를 안고 펼쳐나선 이들의 앞길을 그 무엇보다 가로막을 수 없었다. 세방을 높이고 물을 쌓는 작업이 험치 않았다. 그러나 누구도 물러서는 사람이 없었다.

공사실적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갔다. 현수공작들을 들이대며 긴장한 전열을 펼쳐나간 이들은 많은 밤의 도량을 처리하고 장석공사를 주재적으로 종합보수하였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분당도 책임있게 명명하게 정취 하였다. 그러나 난본체는 공사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를 제때에 해결하는 것이었다.

이때 책임일군들은 우를 쳐다 보며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다.

전국청년학생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행군대 출발모임 진행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지열을 리용하여 평방과 난방을 보장하면 많은 전기를 절약할 수 있고 여러모로 좋습니다.》

자연에너지기를 적극 리용함에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전국청년학생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행군대

이러한 때 국장 평일동무가 자기의 결정을 내놓았다.

《물론 지열에 의한 평방난방체계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열을 비롯한 자연에너지기를 적극 리용함에 대한 당정책을 적극 받아들이는 관철적 자세로 되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높지 않아도 참가자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그러하여 판리국청사 건물에 지열에 의한 평방난방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게 되었다.

국장은 평방난방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기술연구조를 꾸리고 설계에 달려보도록 조직사업을 진흥시켜 하였다. 기술연구진은

자기 힘을 확신하고 떨쳐나설 때

천마군 일군들의 사업에서

그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고 용기있는 하비를 반포하게 정력하기 위한 사업으로부터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것은 당시 자기 힘을 믿지 못하고 조건리박을 앞세우던 일부 일군들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다. 이것은 불평등사회에서 일군들의 권위적인 사업기풍을 떠나서 생겨났을 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일군들은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일욕심, 진취적인 사업정신을 가지고 집단의 마력을 내야 하며 당과 인민앞에 자기의 충실성과 실천력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올해 초 어느날이었다. 임명되기 바쁘게 군안의 여러 지역들을 돌아다니는 강현전담위원장의 마음은 무거웠다.

지난 시기 산골군에서 이 정도로 무거운 것도 겪은 수는 없었으나 여기에서 하진정리를 비롯한 국토관리사업들을 맡게 된다는 것이 이 군의 주민들에게는 어떤 부담이 될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국토관리사업과 관련하여 군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적지 않았다.

생논길을 헤쳐나가는 실정으로 국토관리사업들을 총이 크게 벌여 군의 면모를 보충해야 할 일들이었다.

이것이 그가 군안의 곳곳을 돌아다니며 다진 결심이었다.

천마군 일군들의 사업에서

그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고 용기있는 하비를 반포하게 정력하기 위한 사업으로부터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것은 당시 자기 힘을 믿지 못하고 조건리박을 앞세우던 일부 일군들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다. 이것은 불평등사회에서 일군들의 권위적인 사업기풍을 떠나서 생겨났을 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일군들은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일욕심, 진취적인 사업정신을 가지고 집단의 마력을 내야 하며 당과 인민앞에 자기의 충실성과 실천력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올해 초 어느날이었다. 임명되기 바쁘게 군안의 여러 지역들을 돌아다니는 강현전담위원장의 마음은 무거웠다.

지난 시기 산골군에서 이 정도로 무거운 것도 겪은 수는 없었으나 여기에서 하진정리를 비롯한 국토관리사업들을 맡게 된다는 것이 이 군의 주민들에게는 어떤 부담이 될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국토관리사업과 관련하여 군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적지 않았다.

생논길을 헤쳐나가는 실정으로 국토관리사업들을 총이 크게 벌여 군의 면모를 보충해야 할 일들이었다.

이것이 그가 군안의 곳곳을 돌아다니며 다진 결심이었다.

